



[경제종합] 예능·CF 웃음벨 소비자 걸로 다가서는 CEO 04



Life

[산업] 아우디 R8 V10 피겨선수처럼 부드럽고 날렵하게 질주 08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완화 서울 도심 고밀개발 시동 건다

작년 '8·4 공급대책' 후속조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용도 상향 용적률·높이제한 완화책 마련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범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준공업지역 모습. /뉴스

은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용적률 완화 대상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으로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선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제2

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민간활용분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고밀개발을 실현시키는 높이제한 완화책도 마련됐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익활동 지원 '서울 서남권 NPO' 개관

영등포에 공익활동 교류·소통센터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서울시 서남권 NPO(제3영역의 비영리단체)지원센터'의 문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 센터는 서울 서남권의 지역문제 해결과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영등포구 당산로28길 4 송암빌딩 3~4층에 전용면적 388.92㎡ 규모로 조성됐다.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한다. 시는 서남권 7개 구 공익

활동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2·5호선 전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부근에 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는 '연결과 소통을 통한 참여, 협력, 혁신적 시민사회 구현과 시민(력)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지역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지역 공익활동 자료 수집 ▲공익활동 지속가능성 장 연구 같은 지역 밀착형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여름철 도심, 산지보다 불쾌감 오래 느낀다

사물인터넷 'S-DoT' 도시데이터 측정

서울시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내 곳곳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센서 'S-DoT'으로 측정된 도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가 산지보다 여름철 불쾌감을 더 먼저, 오래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도심지 불쾌지수는 산지보다 2~3주 먼저 한 단계 높

게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더운 날 기준(8월 26일) 수락산 일대는 불쾌지수가 오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높음' 단계로, 이후부터는 '매우높음' 단계로 측정됐으나 공릉역 부근은 하루종일 '매우높음' 단계를 보여 여름철 더운 날 도심지역의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신청사 건립,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내년 1월 건축계획안 최종 확정

고양시는 지난 4월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경기도에 의뢰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지난 1일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청사 건립사업의 필요성, 재정·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행정적인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신청사 건물·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지난달 17일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 더욱 속도감 있게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 2950억 원, 연면적 7만 3946㎡ 규모의 신청사 건립사업은 오는 9월 국제 현상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1월 건축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5년간 반려견 놀이터 8개소 확충

반려견 개체수에 비해 놀이터 부족 2025년까지 매년 1~2개 조성 계획

서울시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추경 예산 1억원을 확보해 다음달에 사업지를 선정하고 연내 공사에 들어간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반려견 놀이터 2곳을 신규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매년 1~2개씩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금년에는 내달 중 공모로 선정된 자치구 1곳과 마포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다. 시는 2022~2023년에 각 2곳, 2024~2025년에 각 1곳씩을 추가해 향후 5년간 반려견 놀이터 총 8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은 그간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시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현재 서울



지난 4월 송인근린공원을 방문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김현정 기자

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만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 게시글이 9개가 올라와 있다.

시민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마련해달라고 시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 개체수에 비해 놀이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서울시에

신규 등록된 반려견 개체수는 4만4721마리이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총 44만 9249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는 7곳뿐이며, 전체 면적은 6321㎡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의 반려견 6만4178마리에 1곳의 놀이터가 할당된 셈이며, 면적으로 따져보면 한 마리당 고작 0.014㎡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시에 따르면 6월 기준 강북구(북서울 꿈의 숲), 광진구(어린이대공원 역 부근 어린이회관), 송파구(탄천유수지) 3개 자치구가 반려견 놀이터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시는 연내 반려견 놀이터 완공이 가능한 자치구를 사업 대상지로 다음달에 우선 선정하고 8~12월 마포구 및 1개 부지에서 조성 공사를 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49

6월 3일 (木) 음력 : 4월 23일

수도권 날씨 19~2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6/22, 동두천 16/22, 가평 15/22, 파주 16/22, 서울 19/23, 양평 17/23, 인천 17/21, 수원 18/22, 용인 18/22, 평택 17/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봉헌 5천만원 가짜뉴스' 소송낸 강기정...1심 패소 /사진 뉴스
▲ '시속 229km 만취 난폭운전' 사망사고 벤츠남, 징역 4년 선고

▲ ISS, 우주쓰레기와 충돌로 외부 로봇 팔에 구멍나
▲ 도쿄올림픽 일본 관계자 10만명인데...백신은 고작 1만8000명분뿐



▲ 손흥민, 펠레 선택 받아...메시·호날두와 FIFA21 베스트11 포함 /사진 뉴스
▲ 경찰, 불법도박 혐의 윤성환 전 삼성투수 구속영장 신청